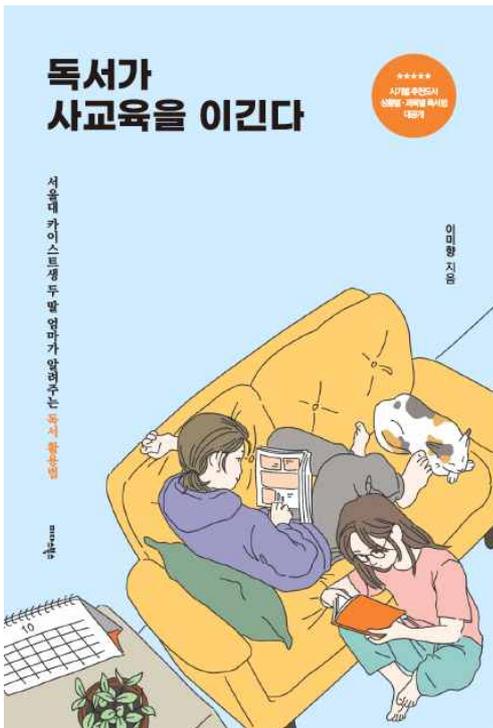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

서울대카이스트생 두 딸 엄마가 알려주는 독서 활용법



- 도서명 :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
 - 부 제 : 서울대·카이스트생 두 딸 엄마가 알려주는 독서 활용법
 - 지은이 : 이미향
 - 분 야 : 자녀교육
 - 쪽 수 : 280쪽
 - 판 형 : 신국판(152×225)
 - 제 본 : 무선
 - 정 가 : 17,000원
 - 출간일 : 2023년 04월 17일
 - ISBN : 979-11-6910-209-4 03590
 - 담 당 : 임종익 마케팅본부장 (010-6235-6954)
 - 메 일 : midasbooks@hanmail.net
- 예약판매 기간 : 2023년 03월 31일(금)~2023년 04월 16일(일)
신간출고일자(배본일) : 2023년 04월 17일(월)



04032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3 서교타워 711호 미다스북스
Tel 02)322-7802~3 Fax 02)6007-1845 e-mail midasbooks@hanmail.net

“독서를 성적으로 바꾸는 상위 1%의 비밀!”

**“독서는 입시의 80%를 완성하고
행복의 디딤돌을 만든다”**

**아이의 공부와 행복
둘 다 잡고 싶은 엄마를 위한 성공 독서 코칭!**

**시기별 추천도서, 상황별·과목별 독서법 등
사교육을 이기는 독서 활용법 대공개!**

저자는 책을 읽을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 아는 게 많아지고,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다. 경험한 적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독서의 힘에 매료되어 이런 결심을 했다. ‘엄마가 되면, 애들 교육은 독서로 하겠어!’

그 후, 엄마가 되어 두 딸을 낳고 독서 중심의 교육을 하며, 동시에 많은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 상담을 하면서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에 의문을 가졌다. 온 세상이 외치는 독서를 왜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할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는 독서 할 시간을 빼앗는 것은 바로 사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들은 주로 아이가 독서로 공부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독서 습관이 굳건히 자리 잡기 전에 사교육이 먼저 아이들의 자유 시간을 차지하는 문제점을 목격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계획성 있는 다독을 통해 공부와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원을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두 딸을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보냈다. 독서로 교육을 이끌고 싶은 부모들에게 독서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책을 썼다. 저자가 두 딸과 직접 실천한 독서 방법과 저자가 지도했던 아이들과의 독서 경험을 모두 공개한다. 시간을 아끼고 행복을 부르는 최고의 공부법, 바로 독서이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겠지만, 독서는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고의 자기주도 공부법이다.”

사교육을 이기는 과목별 독서법!

1. 국어 - 독서는 국어 점수와 직결된다

다독한 아이의 어휘력과 이해력은 자기 학년 국어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는다. 국어 능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싶다면, 신문 기사나 사설, 이론을 설명하는 지식 도서를 분석하면서 읽으면 효과적이다.

2. 영어 - 원서로 다독하면 모든 시험이 정복된다

영어 지도를 하던 학생들에게 독서를 접목했을 때 성적이 빨리 향상했다. 대학 입시 외에도 입사 시험, 승진 시험 등으로 영어는 인생의 중요 기회마다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내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잘하길 바란다면 독서의 길로 인도하시라.

3. 수학 - 독서로 수학의 개념과 실력을 쌓는다

청소년 시기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차지하는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수학과 독서를 연결함으로써 저자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수학을 호기심을 채워주는 놀이 차원의 과목으로 접근했다. 독서로 노는 듯이 보여도, 이렇게 쌓은 개념은 흔들림 없는 수학 실력으로 이어진다.

4. 과탐 - 과학 독서는 과학을 좋아하게 한다

과학의 영역은 넓다. 아이들이 과학 도서를 즐겁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마음에 드는 영역이 나온다. 좋아하는 영역에서 책의 수준을 올려 나가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5. 사탐 - 독서로 쌓은 상식은 사탐에서 빛난다

사회 과목은 용어와 설명이 이야기 방식이 아니라 딱딱하고 어렵다. 따라서 교과 연계 도서 시리즈를 잘 골라서 읽는다면 이야기에 빠져드는 사이 사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인문 사회 영역은 독서와 직접적인 연관을 두기 때문에 다독이 곧 성적이 되기 쉬운 과목이다.

저자는 아이들을 독서로 교육하며 불안할 때도 많았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초조함이 학원으로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 입시를 끝낸 학부모들의 소감과 두 딸의 독서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독서는 사교육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젠 더 확실히 안다. 저자의 아이들은 학원이 아니라 다독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모든 아이는 독서를 좋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 책은 독서로 즐겁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합격한 두 딸의 독서기록이다. 공부와 행복 다 잡을 수 있는 따뜻한 공부법, 독서를 이 책과 함께 배워보자.

■■■ 차례

프롤로그 - 독서로 교육할 결심

제1장 - 독서는 어떻게 사교육을 이기는가?

- 입시의 80%는 독서로 완성된다
- 입시정책을 알고 짠 독서 전략은 다르다
- 독서는 입시 어디에서나 빛난다
- 교과서 연계 독서, 사교육을 뛰어 넘는다
- 독서는 아이 정서를 안정시킨다

정보1 - 시기별 추천 도서 / 영유아기

- 믿을 수 있는 부모로 인식되기/ 책 읽어주기의 힘

제2장 - 아이들이 독서를 싫어하는 5가지 이유

- 지나친 피로: 공부에 지치면 독서 할 수 없다
- 디지털 중독: 즐거운 일이 없다는 뜻
- 모순된 어른들: 학교도 가정도 독서 하지 않으면서
- 비교의 함정: 아이의 긴장과 불안을 일으킨다
- 자주 지적하는 부모: 꾸중보다 침묵이 낫다

정보2 시기별 추천 도서 / 유치원

- 아이가 독서를 즐기면 교육의 반은 성공이다

제3장 - 독서에 저절로 빠져들게 하는 5가지 방법

- 거실을 독서의 온상으로 삼아보라
-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다
- 모든 학습을 놀이화하라
-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라
- 재밌는 만화책을 활용하라

정보3 시기별 추천 도서 / 초등학교

- 학원이나 독서나 결정 시기/ 독서의 떡잎 키우기

제4장 사교육을 이기는 상황별 독서법

- 공부 머리가 없는 아이: 그렇다면 독서가 최고다
- 학원이 지루한 아이: 학원보다 독서가 이롭다
- 사춘기 반항이 심한 아이: 독서는 마음을 치유한다
- 한 종류 책만 고집하는 아이: 독서 자체를 칭찬하다
-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아이: 독서는 시간을 단축한다

정보4 - 시기별 추천 도서 / 중학교

- 독서의 다양한 역할/ 독서는 힐링이다

제5장 - 사교육을 이기는 과목별 독서법

- (국어) 독서는 국어 점수와 직결된다
- (영어) 원서로 다독하면 모든 시험이 정복된다
- (수학) 독서로 수학의 개념과 실력을 쌓는다
- (과탐) 과학 독서는 과학을 좋아하게 한다
- (사탐) 독서로 쌓은 상식은 사탐에서 빛난다

정보5 - 시기별 추천 도서 / 고등학교

- 독서로 전공 적합성을 조절하라

에필로그 - 이런 교육이길 바란다

■■■ 저자 소개

이미향

서강대 영문학 전공, 심리학 부전공. 시드니대학원 영어교육학(TESOL) 석사. 회사 생활을 접고 15년간 목동에서 독서중심 영어 교육을 하며 많은 부모와 아이들을 상담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말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마음에 대한 관심으로 심리학을 부전공했다. 그 후 모든 날들이 사람의 말과 마음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의 시간이었다. 덕분에 자신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타인의 다른 특성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하여 딸 둘을 낳았다. 부모가 되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겼지만, 아이들이 행복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제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고,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짝 찬 하루는 아이들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것 같았다.

저자는 독서에 대한 믿음으로 사교육 대신 독서로 공부와 정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마음먹었다. 아이들은 매일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었다. 충분한 독서가 전제되니 사교육의 유혹에 견디는 힘이 생겼다. 아이들이 앞으로 배울 교과목을 염두하고 독서 방향을 조절하니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기록했다.

현재 <공부심리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공부와 심리 중에서 심리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다. 아이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심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독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초중고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적다. 아이들을 쥐어짜지 않고도 충분히 즐기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메일: jhmhbb@naver.com